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가능성 언급

김영록 지사, 차담회서 “무안공항 활성화 위한 고민 필요” 전남도 첫 입장 표명에 관심...무안군민들, 도청 찾아 항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군 공항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합평·영광측의 군 공항 유치 움직임에도, 무안 지역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물러나 있는 듯한 입장을 취했던 전남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간부들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무안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겠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공항 통합·이전이 지연되면서 관광객 유치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서남권 중추 공항으로의 위상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전남도 내부 분위기다.

당장, 광주·전남·무안이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광주 민간공항은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 계획도 바뀐 상태다. 애초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 지자체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 시기를 검토"

라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 2021년 내놓은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에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시기를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 지사의 언급은 이같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이후 실·국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무안공항 활성화 및 국가항공특화산업 조성 등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냉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광역협력사업 등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 내부에서도 "무안도 군 공항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 예상되는 군 공항 특별법 통과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무안군 주민들은 이날 전남도청을 찾아 무안군민들의 반대에 불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공지능 창업 모든 것 돕는다” 광주 ‘AI 기업 지원 자문단’ 출범

각계 112명 기술·법률·투자 펀드 매칭 등 전문 분야 멘토링

광주 인공지능(AI)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돕기 위한 'AI 전문가 자문단'이 됐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컨설턴트 등 1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전문가 자문단이 AI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광주에 뿌리를 내리거나, 이전 예정인 인공지능(AI) 기업의 창업 컨설팅부터 기술·법률 자문, 투자 펀드 매칭까지 전 분야를 멘토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8일 광주 동구 AI 창업캠프에서 광주 AI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갖고, AI 기업 별 맞춤형 전문 서비스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AI 전문가 자문단은 창업, 기술, 지식 재산·법률, 자금, 판로개척 등 5대 분야로 총 112여 명으로 구성됐다.

국책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컨설턴트,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AI 산업분야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AI 전문가 자문단 활동에 나서는 안순례 변호사는 "이전에 지적재산권 관련 위반으로 소송 중인 AI 기업의 자문을 받고 방향을 설정해 주며 많은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서 "이번 AI 전문가 자문단 활동을 통해 회사 설립 시 약관 자문과 각종 법률 자문을 도와 AI 기업들이 성장하고 굳건히 부

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허정규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도 "창업하려고 하는 AI 기업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겪는 고충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술 자문 외에도 향후 기업들의 기술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I 전문가 자문단은 창업 분야에 사업모델 개발 및 고도화, 시장 진출 전략, 기술 분야에는 인공지능 주요 기술 개발, 지식 재산·법률 분야는 법률해석 및 특허 출원, 자금·판로개척 분야에는 자금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AI 전문가 자문단은 AI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ai365.or.kr)를 통해 신청한 AI 기업에게 전문가를 지정하거나, 코디네이터가 전문가를 매칭하여 1회 2시간 이내 자문을 진행한다. AI 기업들은 분야별로 자문을 최대 3회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김준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AI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AI 기업의 분야별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AI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확보, 매출 상승, 기업 간 협업을 도모해, 광주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음달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 광주시와 5개구의 협업을 통한 통합 돌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이 28일 오후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 민간, 공공 돌봄기관 관계자 등이 돌봄 도시 선포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이 마을 위험요인 조사·분석...다음달 26일까지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4월 26일까지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마을에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의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해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안전 관련 단체 활동가 등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안전마을 주민협의체'가 주도한다. 협의체는 교통사고, 자살, 화재, 범

죄, 생활안전, 감염병 등 지역 안전지수 6대 분야의 안전의제를 발굴해 실행하고,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통해 인접 마을과 사업을 공유,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안전마을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자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자치구 안전총괄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프로젝트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개 마을을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5000만원 이내 지원금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시의회, 경찰청, 시민단체, 학계, 교통사고·자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마을 만들기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안내서도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4월 6일 오후 2시 시청 충무시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구도심 '공동화 해법 찾기' 정책토론회

홍기월 광주시의원 개최

광주시의회 홍기월(민중·동구1) 의원은 28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구도심 공동화,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육아시설, 행정기관, 교통기능 등을 모은 '컴팩트 시티' (Compact City)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남승진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의사는 "광주의 경우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구도심 외곽으로 흩어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면서 "특히 건축물의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 안전 및 방범대책 미비, 쉼터 등 여유 공간 부족 등이 구도심 문제점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컴팩트 시티를 통한 도심 공동화 대응 전략 사례를 소개했다. 컴팩트 시티는 저출산·고

령화 극복을 위해 도심 지역을 거주지와 상업시설을 집중시키는 정책으로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공동화된 도심에 활기를 주는 효과가 있다. 공공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거시설을 배치해 공동화 현상을 극복한 일본 도야마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주제 발표에 이어 홍기월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정일성 총장로 1-3가상인회장, 주승일 총장상인회장, 이상성 대인동예술클럽회장, 이승규 광주시 신원력총괄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는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도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역 내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컴팩트 시티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로 구도심 공동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